

■ 화제의 뉴스 ■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 재구조화 수익률 3.19% '최저'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표준으로 자리 잡은 비용보전(SCS) 방식이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빠르게 대체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 인천공항철도 사업시행자를 코레일공항철도(주)에서 공항철도(주)로 교체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6월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실시협약은 기존 MRG 방식을 SCS 방식으로 바꾸고, 대주주를 코레일에서 KB사모투자신탁펀드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고, 기존 고금리 차입금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RG는 목표 보장수입보다 실제 운임수입이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MRG로 1조 3천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SCS 방식은 투자 원금과 이자 상환액, 운영비 등 표준운영비를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업재구조화는 코레일의 지분(88.8%) 매각을 토대로 진행되었는데, 지난 1월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이 3.55%라는 최저 수익률을 제안하여 낙찰되었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반영하여 최종 수익률은 3.19%가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민자사업 수익률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MRG 폐지 외에도 목표수익률 하향 조정으로 정부가 5천억 원 이상을 절약했다고 말하는 반면, 민자업계 관계자는 시중금리 하락세를 감안하더라도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3%대 초반은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민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환경변화를 이유로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과정에 있고 이로 인하여 민자사업의 예측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건설경제신문 -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 재구조화...수익률 3.19% '최저'\(2015. 6. 22.\)](#)